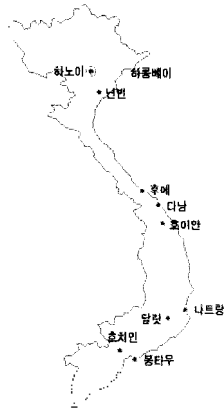


베트남과의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들의 첫 발걸음



-경영지원팀 김명삼 과장대리

국제협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원장님의 뜻과 최근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 축산업 생산규모가 큰 베트남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국외공무 여행의 취지이다.

지난 10월 23일 베트남으로 떠나기 위한 예미소집이 있었다. 편지를 포함한 16명의 직원들은 해외로 간다는 설렘 반, 그리고 첫 국제협력 공무출장이라는 걱정 반 등의 다양한 표정들을 연출하고 있었다.

국제협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원장님의 뜻과 최근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 축산업 생산규모가 큰 베트남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국외공무 여행의 취지라고 보고 편지를 포함한 16명의 직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목적을 상기하고 있었다.

출국당일

16명의 국제협력단은 일요일 오전 일찍 인천공항에 집결을 하고 간단한 수속 후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출발하였다.

남 하노이를 향해 출발하였다.

약 5시간의 비행을 거쳐 도착한 베트남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한국의 초가을을 연상하는 적당한 온도였지만 동남아 특유의 텅텅한 기후를 내뿜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북한 군인 같은 군복을 입은 입국심사원이 미소 없는 무뚝뚝한 얼굴로 입국심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 국가 냄새(?)가 풍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빡빡한 국제협력 인정에 앞서 베트남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롱베





베트남의 수많은
오토바이



까이잡 시장 전경

이에서의 일정이있어 하노이에서 하롱베이로 이동하였다. 버스의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평화롭고 시간이 멈춘듯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베트남의 농촌 풍경은 우리의 60년대 중반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

자유롭게 풀어놓은 가축들, 사람 수보다 더 많은듯 보이는 오토바이, 그리고 폭이 좁고 높이 솟은 건물들, 베트남의 전형적인 농촌 모습은 아직도 열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느낌도 잠시, 평안하게 경치를 감상할 만큼 한가롭지 않은 심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차길은 2차선은 충분히 될법한데 중앙선을 긋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매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추월은 기본이고 남의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는 차를 피해서 무지막지하게 달리는 동안 간아 콩알만 해졌다.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의 말이 차선 개념이 없이 운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길을 4시간여를 달린 후에 도착한 하롱베이는 어느덧 해가 뉘엿 뉘엿 지고 있었다. 그렇게 베트남의 하루는 저물어 갔다.

둘째날

어젯밤에 긴장했던 탓일까? 아니면 호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일까?
본의 아니게 아침잠을 설치고 필자는 시끄러운

베트남 재래 시장

소리를 따라가니 호텔 주변에 생긴 까이잡 재래시장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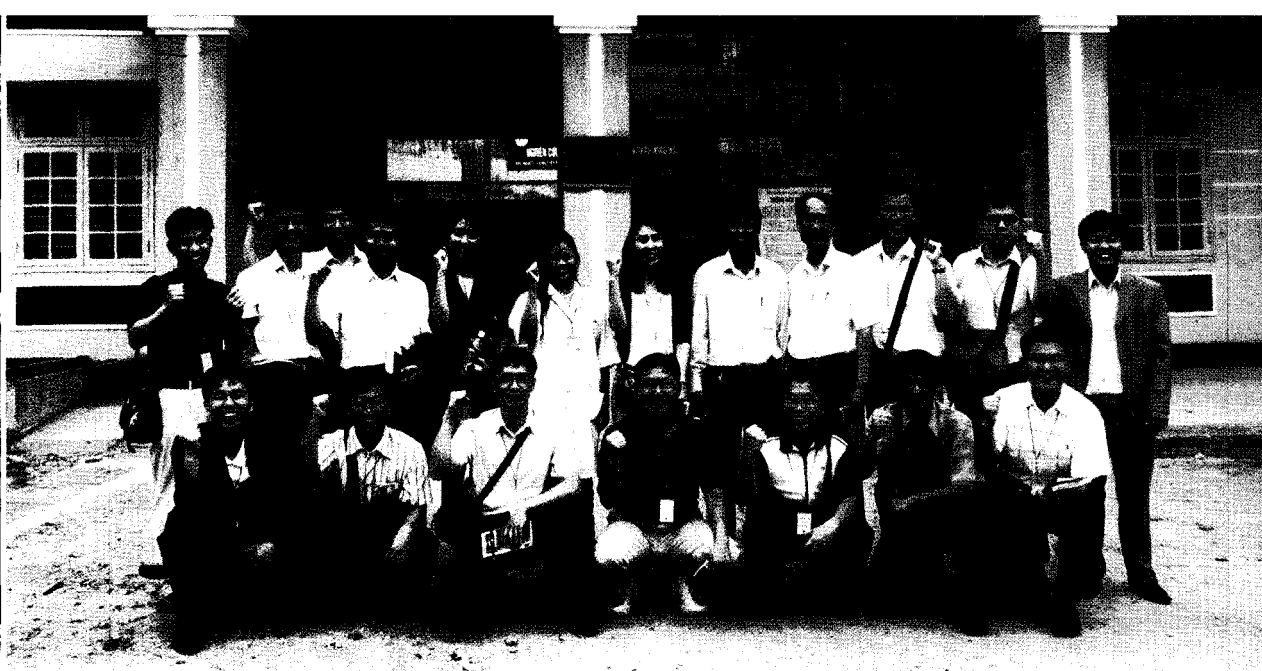
재래시장의 모습은 우리네 시장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을 보면서 베트남 축산물 유통 문화가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제협력단이라는 의무감 때문인지, 아니면 축산물을 보면 확인해 보고 싶은 직업병 같은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가원이 베트남 육류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침 식사 후 하롱베이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

하롱베이의 의미는 '하(Ha)'는 '내려온다', '롱(Long)'은 '용'이라는 뜻으로, '하롱'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라는 의미이다. 영화 '인도차이나'에서





타이유엔 대학 Quang 교수(사진 맨 오른쪽, 그리고 그 옆에 필자)

'런당팜'이 은산했던 아름다운 경치의 그 '하롱베이'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의 하나이다. 사파이어 빛 바다와 3천여개의 그림 같은 주민 섬과 석회동굴이 유명한 곳이다.

이 하롱베이를 뒤고 하고 우리는 내일 있을 기관 방문 및 본격적인 국제협력 업무를 위해 하노이로 다시 향했다.

셋째날

첫 번째 방문지는 베트남 우수 대학인 타이유엔 대학(Thainguyen University)이었다. 우리 협박단 일행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6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타이유엔(Thainguyen)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거리는 멀지 않지만 도로의 사정이 이의치 않아 부려 3시간이나 걸린 끝에 타이유엔 대학에 이동할 수 있었다.

타이유엔 대학(Thainguyen University)의 웬홍광(Nguyen Hung Quang) 교수와의 조우가 낯설지 않았던 것은 베트남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그동안 수없이 메일 및 전화통화를 통해 주고 받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의 우리의 첫 국제 협력은 이렇게 첫발을 내딛었다. 간단한 인사 후 학교 소개와 베트남 축산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 후에 우리기관의 소개를 간략하게 발표하였다.

1970년대에 세워진 타이유엔 대학은 322명의 teaching staff와 440명의 행정 업무 담당자, 그리고 1만1천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농업·축산 분야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학교로 우리 기관과의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요구하였다. 여기서는 우리 기관과 개별적으로 양해각서를 맺자고 할 정도로 우리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축산농품질평가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베트남과 교류 협력을 확대할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평가원이
국제 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일행은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으므로
몸은 피곤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친절 때문에 마음은 행복하였다.

대학교의 실험실 설비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노력을 많이 한다면 베트남 또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 틀림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비 문제로도 연구 개발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 우리의 축산 분야 기술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타이유엔 대학관계자와 함께 하는 오찬은 그야말로 베트남 전통식(다소 고급스러운)의 풍취를 느낄 수 있었으며 우호적인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타이유엔 대학과 교류

두 번째 방문지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베트남 국립축산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Animal Husbandry : NIAH)이었다. 1952년 건립된 국립축산연구원은 원의 규모나 건물 수 등에서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연구원)을 연상케 하였다. 4개의 국과 13개의 본부 그리고 13개 부속 연구소로 이루어진 베트남에서 가장 강력한 축산연구기관이라고 생각되었다.

재정적으로는 베트남 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한국 등 국제 협력을 통하여 지원 받기도 한다. NIAH의 국제 관계를 담당하는 탕(Thang) 박사는 한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회의를 마치고 탕 박사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탕 박사는 스웨덴에서 축산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베트남의 우수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자국의 축산발전에 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만남에서 우리기관의 향후 국제 협력 방향에 대해 좀 더

NIAH_베트남 국립과학연구원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베트남과의 국제 협력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NIAH 뒤로 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마지막 날

이번 베트남의 마지막 방문기관인 BAVI 가축·사료 연구소는 국립 축산과학원의 부설기관으로서 가축개량, 조사료 연구 그리고 가축 부산물(치즈, 요구르트 등)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를 맞이해준 Tang 연구소장 등 BAVI 직원들은 우리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미팅 후에는 BAVI 연구소 주변의 농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방문한 농장의 시설 및 환경은 열악하였지만 축산물 개량을 통해 자국민 경쟁력 강화와 식량 수급에 일조하는 그들의 모습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무리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이틀 동안에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강행군이었는데 이것은 많은 베트남 연구기관과 대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제 베트남 국립축산연구원 그리고 방문한 기관 및 대학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기관 차원에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베트남과 교류 협력을 확대할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평가원이 국제 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일행은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으므로 몸은 피곤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친절 때문에 마음은 행복하였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방문 기관의 여러 관계자 분들, 그리고 방문기간 내내 우리를 안내해 주신 Thainuguyen 대학의 Quang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

BAVI_비비 가축·사료 연구소

